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r/> <h2 style="text-align: center;">10.5(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책 임 자	안창국 과장 한윤규 실장 이규연 본부장보	담 당 자	이진영 사무관 (2156-9892) 김봉한 팀 장 (3145-6710) 임재준 부 장 (3774-9360)
배 포 일	'15. 10. 2(금)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8매

제 목 :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

I 추진배경

□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KOSPI200 등)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

○ 저비용 · 분산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펀드 선호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ETF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데 비해, 우리 ETF 시장은 정체 상황

* 글로벌ETF 순자산총액(십억불): ('10) 1,483 ('11) 1,525 ('12) 1,944 ('13) 2,396 ('14) 2,797 ('15.7) 2,984

* 국내ETF 순자산총액(조원) : ('10) 6.0 ('11) 9.9 ('12) 14.7 ('13) 19.4 ('14) 19.7 ('15.7) 18.9

※ 패시브펀드 : 운용사의 소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로, 적극적 운용을 통해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와 대비되는 개념

□ 국내 ETF 시장 정체와 글로벌 자금의 패시브펀드로 이동 추세에 맞추어, ETF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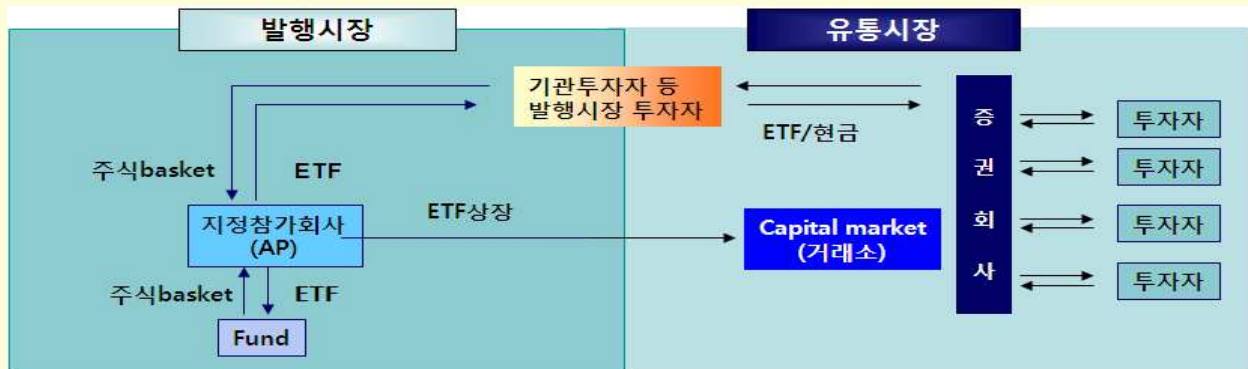
○ 중위험 · 중수익 등 맞춤형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안정적 운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

➡ ETF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효과적 자산관리수단으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참고] ETF 시장 구조

- ETF 시장은 ETF 증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환매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ETF 증권을 상호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분

* 발행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고, 유통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참여



□ 설정절차 (발행시장)

- 투자자는 지정된 증권사(지정참가회사(AP))*를 통해 대상지수를 구성하는 실물바스켓**을 현물로 납입하고 ETF 설정을 신청

* 지정참가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 : 기관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ETF의 설정 및 환매 신청 청구 역할을 담당

- ** 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에 해당하는 실물바스켓을 납입
(예) '코스피200 ETF'의 경우 100종목 이상 & 시총기준 95%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 지정참가회사가 운용사에 ETF 설정을 청구하고 실물바스켓을 납입하면, 운용사는 이를 확인 후 ETF를 신규 발행하여 지급

□ 거래절차 (유통시장)

- 운용사의 ETF 상장신청으로 거래소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에서 ETF를 실시간 거래

* KODEX200의 발행시장에서의 최소설정단위(1CU)는 5만좌(12억원)이나, 유통시장에서는 1좌단위(약24,000원)로 거래 가능

- 이때, 투자자의 원활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AP 중 1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되어 매도·매수 양방향호가를 제출

* 유동성공급자(LP)는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벗어나는 가격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가스프레드 비율 2%, 괴리율 3% 이내로 유지할 의무가 존재

- ① **(현황)** ETF 시장은 제도도입('02)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왔으나, '14년부터 정체되면서 '15.7월 현재 18.9조원 수준

* ETF 순자산총액(조원) : ('10) 6.0 ('11) 9.9 ('12) 14.7 ('13) 19.4 ('14) 19.7 ('15.7) 18.9

- **(상품유형)**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높은 비중을 차지 (68.1%)하고, 해외지수형 및 상품·구조화 ETF 등의 비중은 미미
- **(투자자)**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은 35.9%로, 기관투자자(23.7%) 및 외국인(21.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시장점유율)** 전체 공모펀드 시장에서 ETF의 비중은 '13년 10.5%까지 확대되었으나, '15.7월 현재 8.0%까지 감소

- ② **(평가)** ETF 시장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질적 측면의 성숙도는 선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

* '15.7월 현재 종목수 기준 세계 10위, 거래대금 기준 세계 8위의 시장

- ① ETF가 단기 차익실현, 시장위험 헷지 등 트레이딩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자산관리수단으로의 활용은 저조
- ② 주식처럼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특성상, 일반적인 간접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요기반이 취약
 - 판매마진이 크지 않은 ETF의 특성과 운용규제 등으로 펀드, 신탁, 랩 등 자산관리 vehicle을 통한 ETF 편입도 저조
- ③ ETF 상품 공급이 국내 시장대표지수형 위주로 편중되어 국내 증시 부진시 ETF 시장도 동반 침체되는 경향이 있고,
 - 최근 투자자의 니즈가 커지고 있는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상품 투자 수요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 수단으로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 기본 방향 〉

- ◇ 기관·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ETF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수요저변을 확대
- ◇ ETF 개발·상장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의 역할을 강화

비전

저성장·저금리 시대 핵심적 자산관리수단으로 육성

ETF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요·공급구조 개선

추진
과제

장가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 ①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 연기금
 - 펀드
 - 금융투자회사
- ② 개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 자문업 활성화
 - 투자정보 제공 강화
- ③ ETF 투자 인센티브 제고
 - 해외주식형ETF 세제혜택 부여
- ④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괴리율 관리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

- ① 상장규제 합리화
 - 상장심사 간소화
 - 시장관리규제 개선
- ② 운용규제 개선
 - 파생상품 한도규제 개선
 - 설정·환매방식 확대
 - 운용방법 확대
- ③ 상품 공급 다변화
 - 투자회사형 ETF 상장
 - 해외지수파생형 ETF 다양화
 - 외국 상품 ETF 상장

1. [수요측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① 기관투자자의 수요저변 확대

- ① (연기금)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 확대** 등 연기금의 ETF 편입관련 규제를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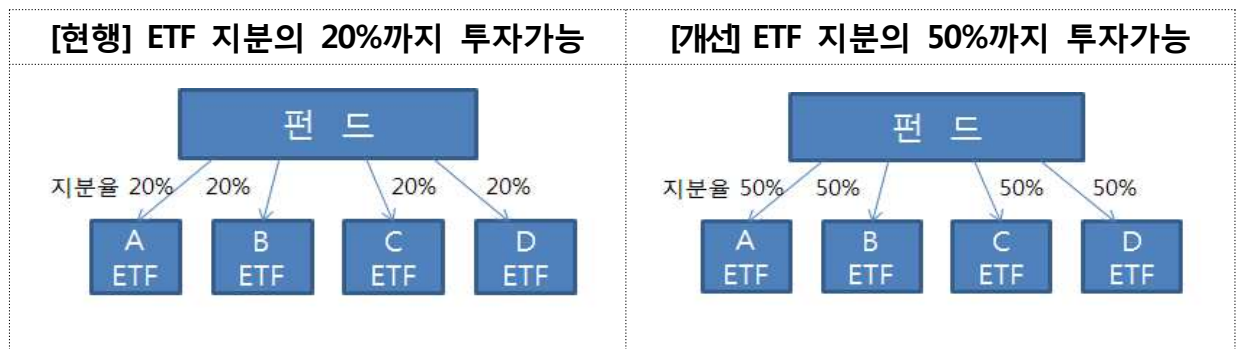
* (현행) ETF 편입 금지 → (개선) ETF 편입 허용 (레버리자·인버스상품 제외)

** (현행) 파생형 ETF 금지 → (개선) 합성ETF 중 레버리지 없는 상품은 허용

-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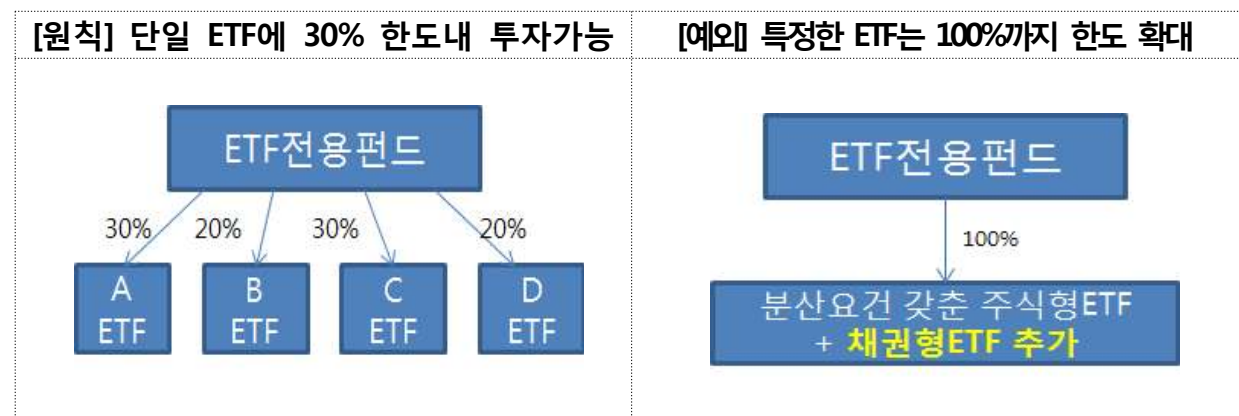
- ② (펀드)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를 개선

-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현재는 ETF 지분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을 50%까지로 확대



-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해당 펀드의 투자한도 예외(30%→100%) 적용대상을 확대

* (현행)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 → (개선) 채권형 ETF(국고채형 등) 추가



- ③ (금융투자회사)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관련 위험액 산출시 낮은 위험값(4→1%)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KOSPI200, KOSTAR 지수 → (개선) 유동상분산도를 갖춘 다른 지수를 추가

② 개인투자자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① ISA 제도 도입시 ETF 편입 원활화를 위한 기반 조성

- ISA 취급기관의 ETF 편입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ETF 편입 관련 은행-증권사 간 제휴 강화 추진

② ETF 상품 간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ETF 정보제공 확대

③ ETF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고

- '16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

* 펀드 투자계좌로 투자할 수 없는 ETF의 특성을 반영 ETF 전용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 부여

④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에 대한 LP 평가를 강화*하고, 괴리율 발생우려가 높은 ETF가 상장되지 않도록 상장심사 강화

* (현행) 종가기준 괴리율 평가 → (개선) 장중 괴리율 평가로 변경, 괴리율 평가배점 상향

2. [공급측면] 규제 개선을 통한 ETF 상품성 제고

① 상장규제 합리화

- ①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45→20일)하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

* (현행) 기 상장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추가상장을 금지 → (개선) 동일지수 ETF의 중복상장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개선

- ②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등 시장관리규제도 개선

* (현행) 소규모저유동성 ETF 상장폐지 → (개선) LP 제도 등을 감안 저유동성 요건 폐지

② 운용규제 개선

- ①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확대(100%→200%)

*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일별 포지션 조정·가격제한폭, Stop Loss 장치 등을 통해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가 가능

- ② ETF 설정·환매는 수량단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합성 ETF*에 대하여는 금액단위 설정·환매를 허용

* 특정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인 스왑(Swap)을 편입하는 ETF

- ③ ETF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현물주식을 직접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허용

* 기초지수-NAV 간 높은 상관성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③ 상품 공급 다변화

- ① (투자회사형 ETF)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보고의무*를 완화하여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 허용

* 지분 5%이상 보유시 공시의무(자본시장법§147①), 금융기관이 지분 20%이상 소유시 금융위 사전승인의무(금산법§24①) → 증권사가 투자회사형 ETF의 LP 참여를 기피하여 상장이 전무

- ② (해외주식형 ETF)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ETF의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이머징 국가·해외섹터 ETF 등으로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다변화

-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협의하여 연기금의 자산운용 수요에 부합하는 ETF 상품을 개발하고 상장

* 충분한 수준의 분산도를 갖춘 지수(200개 종목 이상, 예: TOPIX(1,800여 종목))의 경우에는 기초지수 요건 중 최저 시가총액(150억)·거래대금(1억)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③ (파생형 ETF)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된 레버리지 ETF를 섹터 상품까지 확대하고,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

④ (외국 ETF) 외국의 상품 ETF가 국내에서 상장·판매되기 위한 적격기준을 완화*하여 해외 유수의 ETF**의 국내 상장을 추진

* (현행) 외국 ETF가 편입하는 기초자산 중 동일상품 편입한도를 20%로 제한 → (개선) 국내 ETF와 동일하게 동일상품 편입한도를 100%로 확대

** (예시) SPDR gold(금 실물을 100% 편입하는 운용규모 세계14위의 ETF)

IV 향후 추진계획

□ 각 과제별 후속조치 사항은 가급적 금년중 차질없이 마무리

※ (별첨) ETF 시장 발전 방안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